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로

봄 나들이 왔어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과 직원들은 최근 ‘계절나들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떠난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시 광산구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공)

# ‘아동학대 ZERO 전담’ 실현한다

###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위기아동 사전 발굴, 아동학대 인식 개선, 예방·보호체계 강화

전남도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방에 나섰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증가세라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0.75%였던 전남지역 아동학대 발생률(아동 인구 100명 당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2021년 0.77%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는 전국 평균 아동학대 발생률(2020년 0.4%, 2021년 0.5%)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발생 건수도 지난 2017년 1417건에서 1723건(2018년)→2014건(2019년)→1909건(2020년)→1942건(2021년)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월에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할아버지(70대)가 손자(9세)를 혼욕하는 도중 태권도 띠를 휘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 달에는 늦은 시간 A(8)군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 A군을 비롯해 B(여·5)양이 쓰레기가 난무한 집에서 장기간 방치된 채 지내는 사실이 알려졌다. 부모는 경제성 지능장애로, 아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기로 했다.

이 종합계획은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학대 ZERO 전담’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까지 실시된다.

‘우리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위기아동 사전 발굴 ▲아동학대 인식 개선 ▲예방·보호체계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기아동 사전 발굴’ 분야는 아동학대 전수조사와 점검, 교육 등 4개 사업이 진행된다. 연 3회 방문조사로 e아동행복지원 위기아동 조사가 실시되고 만 3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양육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아이들까지 파악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바 있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연 2회 사·군·경찰이 민·관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교육·행사를 주로 한다. 아동학대 근절 생활밀착형 홍보 뿐 아니라 학부모 설명회, 임신부 교실 등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펼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선보이며 인식 개선에 나선다.

‘예방·보호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82억여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직군을 활용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남도아이 지킴이단’이다. 이·동장, 검침원 등 전남도 전체 8657명에 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이들과 매일같이, 가까이에서 만나며 아동학대 징황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교육청, 편의점협회와 약사회, 의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를 하게 해 사전에 예방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지나쳤던 아동학대 증거들을 지킴이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한다는 것이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와 학습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 사·군 차원에서 사례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격월 주기로 사례관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매달 진행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발달장애청소년 숲놀이단 모집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7일까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이 ‘발달장애청소년 숲놀이단’을 모집한다.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은 국립장성숲체원과 공동으로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숲이랑 인사해요’, ‘숲을 걸어요’, ‘숲과 놀아요’ 등 숲속 스트레칭과 자연물 관찰하기, 숲 오감체험 등이 마련돼 있으며 주로 국립장성숲체원 내 산림교육센터와 치유의 숲에서 진행된다. 만 11세부터 19세 발달장애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7일까지 선착순으로 33명을 접수 받는다. 신청은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혹은 국립장성숲체원에 전화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섬지역 생물 살핀다... ‘섬누림호’ 취항

### 저탄소 도서생물조사선

섬 지역 생물을 살피는 조사선 ‘섬누림호’(61t 급)가 취항했다. (사진)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 취항식이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열렸다.

섬누림호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전기모터+디젤기관)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이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선박 입출항 시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항만 인근에 대기오염 물질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 디젤기관보다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선박 중 처음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섬누림호(길이 30m, 폭 5.4m, 높이 2.6m)에는 최대 20명 승선이 가능하고 최대속력은 31노트



다. 특히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무인도에서도 생물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섬누림호가 선박 운항의 저탄소화 확산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며 “섬누림호가 우리나라 섬지역 미지의 생물로부터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지역 해조류 종 목록집’ 발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 지역 해조류 정보를 담은 ‘섬 지역 해조류 종 목록집’을 발간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1149개 섬에서 해조류 653종에 대한 목록과 분포 정보를 담고 있는 목록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목록집에 담긴 653종의 해조류는 국내 기록된 전체 기록 종의 6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섬 면적이 전체 국토의 5.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섬 지역에 해조류 종이 높은 분포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자원관의 설명이다.

이번 목록집에서는 섬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II급(1종), 기후변화생물지표종(7종), 한국

고유종(14종), 국외반출승인대상종(269종)도 수록돼 우리나라 법정관리종 현황과 함께 섬 지역별 해조류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광합성 과정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생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6종(녹조류 3종, 홍조류 3종)도 포함됐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종 목록집 발간으로 국내 섬 지역별 해조류 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연구와 정책지원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바다 여행’ 환경전문가와 함께 떠나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바다 여행 ‘바다, 우리가 갑니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양, 새만금, 고창, 고흥의 바다를 찾아 플라스틱 쓰레기·바다생물 멸종 등 바다가 처한 위기의 현장을 살펴보고 희망의 가능성을 찾는 것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일 예정이다.

첫 장소인 광양에서는 광양산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가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류 지역의 독특한 생태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양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설치돼 운영중인 시설로 현재, 하루 3만여t의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생산해 광양제철소에서 사용중이다.

섬진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함께 걷고, 배알도 정상의 ‘해운정’에서는 섬

진강 건너 하동의 금오산이 보이는 풍경을 즐기면서 섬진강 하구의 넓은 백사장에는 다양한 생물들도 살펴본다.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 2차례, 하반기 2차례로 기획됐다. 6월에는 해수유동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전북 부안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갯생물들을 만난다. 9월에는 ‘바다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해상풍력과 지속불가능한 에너지-핵발전이 미치는 바다의 영향’을 살펴본다. 10월에는 따뜻한 해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생태숲을 찾아가 바다를 배우고 느낄 예정이다.

참가는 선착순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환경운동연합 회원이면 1만 8000원 비회원이면 2만5000원이다. 미취학 아동 참가비는 1만원이다.

김현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쓰레기와 폐수가 버려졌던 바다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멸종, 기후위기, 물 등의 문제의 해법을 바다에서 시민과 함께 찾는 것이 이번 기행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